

News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 탄력... "하반기 추가 지분매각 적기"

아시아경제

하반기부터 우리금융지주의 완전 민영화(지분매각) 작업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최근 주가가 완연한 상승세로 접어들며 내년을 목표로 정부의 지분매각 로드맵이 본궤도에 올랐던 평가 금융권에 따르면 공자위의 다음 지분매각 시점은 이르면 7월로 예상. 지난 4월 매각 후 예보의 잔여지분(15.25%, 약 1억1016만주)에 보호예수가 적용됐기 때문

DGB금융의 실험...싱가포르에 글로벌 본사

매일경제

DGB금융그룹이 국내 금융지주사 중에서 처음으로 해외에 제2의 본사를 설립. 디지털금융의 공세와 지역 경제 침체 등 국내 영업 환경 악화하자 해외에서 수익원을 찾겠다는 각오 금융지주 내 글로벌 사업분부를 따로 분리하여 해외로 옮긴 뒤, 글로벌 사업을 직접 관리하도록 한다는 계획

금융지주 인터넷은행 허용을 은행연합회, 당국에 의견서

매일경제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지주사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하는 것과 관련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은행계 금융지주사가 인터넷은행 설립에 관심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전달. 시중은행 부사장 회의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을 정리

신한은 '같이' KB는 '따로'...생보사 인수후 전략 극과극

서울경제

'리딩 금융'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 중인 신한금융과 KB금융이 똑같이 외국계 생명보험사를 인수하고도 독자적인 전략 펼치는 중 신한생명 오는 7월 오렌지라이프와의 통합사인 '신한라이프'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KB금융은 푸르덴셜생명과 KB생명을 결국 합병하겠지만 한동안은 각자 체제를 유지하기로

무디스, 미래에셋증권 신용등급전망 부정적→안정적 상향

뉴스1

미래에셋증권은 무디스(Moody's)가 자사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 기업신용등급은 'Baa2'로 유지 "미래에셋증권의 위험자산 성장이 완만해질 것"이라며 "우발채무와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 축소를 목표하는 계획을 고려할 때 리스크 선호도, 레버리지 및 자금조달 개선될 것"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험백화점 GA, '대형사 쏠림' 가속화

이코노미스트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에서 '대형사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 중·대형 GA의 수수료 수입, 신계약 등은 증가세지만 고객 만족도 지표 중 하나인 보험계약유지율은 하락세 지난해 중·대형 GA 수수료 수입은 7.2조원으로 전년 대비 3.4%(2330억원) 증가한 반면, 중·대형 GA 신계약 건수도 1485만건으로, 전년에 비해 3.2%(46만건) 늘었다.

무해지환급 보험의 자본 인정 요청한 손보업계...속사정은?

비즈니스위치

손해보험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손보협회가 무해지환급금 보험의 보험료적립금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따른 해외 대체투자 손실 증가로 손보사들의 지급여력비율(RBC)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

롯데손해보험 1분기 영업이익 275억 '흑자전환'

파이낸셜뉴스

롯데손해보험, 올해 1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275억원과 628억원으로 전기대비 흑자전환. 수익성, 신계약가치가 우수한 장기보장성보험 전년 동기대비 19.5% 성장 손해율은 20년 1분기 90.1%에서 21년 1분기 85.6%로 4.5%포인트 개선. 또한 별도 자본확충 없이 추가 유동성을 확보해 지급여력(RBC) 비율은 8.9%p 상승할 전망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